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9,900원 인상
유급 대체휴무 쟁취
실질적 위험성평가 시행!

제1호 / '15.8.24(월)

■발행처:선전부 ■발행인:조민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사측 결단내려야 한다

이번주에 안되면 9기 지도부와 지부교섭 새로 해야

임금인상안은 의견접근

휴가 전까지 2개사만이 임금인상에 대해 의견접근하며 우려를 키웠다. 일부 회사는 임금안을 형편없이 제시하거나 아예 제시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도 있었다. 휴가 이후 2차례의 지부교섭을 통해 나머지 4개사도 임금인상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 올해 교섭이 그래도 원만히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을 제외한 지부 요구안에 대해 성의있는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마치 임금만 해결되면 나머지 요구안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식이다.

사측 제시안

1. 2015년 임금인상

- 대한이연(주) : 기본급 월 70,000원 (2015.4.1부)
- 한국JCC(주) : 기본급 월 57,500원 (2015.3.1부)
- (주)코스모링크 : 기본급 월 48,000원 (2015.4.1부)
- 한국로버트보쉬 : 연봉평균 대비 3.3%인상
(연간 평균 인상액 1,459,198원)
- KDK : 기본급 월 45,000원 (2015.3.21부)
- 한온시스템(주) : 기본급 월 85,000원 (2015.1.1부)

2. 유급휴일

- ① 설날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가 일요일과 중복시 익일을 휴무로 있다.

- ② 상기 ①항의 내용보다 각 사별 단협이 상회하는 경우 그 단협에 따른다.

3. 위험성 평가

- ① 회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매년 조합(지회, 분회)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 ② 회사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노사 동수가 참여하며, 조합측 인원에 대한 회의 참석시간 및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단, 위험성평가 실시 기구,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임금 해결됐으니 나머지는 배째라?

지부가 요구한 유급휴일 대체휴무는 관공서와 동일한 기준이다. 절대 무리한 수준에서 이뤄진 요구안이 아니다. 그러나 사측은 설날과 추석은 민족의 명절이니 포함한다 해도 어린이날은 안된다고 버티고 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2019년, 2024년, 2030년에 한번씩 있다. 도대체 어린이날은 절대 안된다고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사측은 지회별 임금이 해결됐으니 배째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부는 올해 임단협이 다음주에 합의 안되면 9기 집행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배째라고 나오고 있는 사용자들은 진짜 배째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14차 교섭 속기록

지부 요구안 합의할만한 수준으로 제출해라

사 : 매년 교섭할 때마다 바람은 빨리 잘 마치는 것인데 올해도 약간은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 한온시스템도 회사가 바뀌면서 임금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지회와 오늘 임금안을 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올해 지부도 선거가 있어서 빨리 끝내셨으면 한다고 했는데 휴가도 넘기고 목전까지 왔다. 임금에 대해 안을 제출하고 지부 의견을 듣고 이후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 사용자들은 오늘이 마지막 교섭이길 바란다.

노 : 코스모링크와 한온시스템이 나뉘도록 현명한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한다. 임금 의견접근 본 것에 대해 환영한다. 지부교섭 의제가 정리가 안되고 있다. 지부 교섭을 할 수 있는 시한이 8월 27일까지 밖에 안된다. 그 이후는 선거기간이다. 다음주 교섭까지 안갔으면 한다. 다음주까지 안되면 잠정중단하고 10월에 새 집행부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오늘 안을 제출해서 지부교섭 의제까지 마무리했으면 한다. 안 제출해달라. <사측 안 제출>

임금 인상 관련해서 한온시스템과 코스모링크는 의견 접근한 것으로 얘기 들었다. 이 부분은 잠정합의한 것으로 하자. 유급휴일 요구안은 지난 번 보다 진전된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수용하기 어렵다.

사 : 설하고 추석은 민족 명절이기 때문에 조합의 요구에 따라 수정했지만 어린이날은 별도 안을 마련 못했다. 연간 근로일수를 맞추자는 단서조항은 사용자가 과감히 철회한 부분이니까 지부에서도 회사마다 사정이 다른 것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노 : 올해 요구 자체가 공무원 수준은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었다. 이 내용으로 의견접근하기는 어렵다. 지부 요구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되어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 : 지금 수정안을 제시하긴 어렵다. 저희가 별도로 또 모여서 의견을 모아야겠지만 협의하는 내용을 봐서는 지금이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나온 것이다. 사용자도 답답하다. 특별한 다른 안은 없다.

노 : 그럼 오늘 교섭 마치고 다음주 임기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교섭을 열자.

사 : 정회 요청한다. <정회>

사 : 내부적으로 다른 안을 마련해보려고 의견을 나눴는데 사용자 간 의견일치를 못봤다. 오늘 종결하고 다음 주 교섭까지 중지를 모아보고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노 : 8기에 지부교섭이 합의 안되면 9기 임원 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다시 논의될 것이다. 그런 점 감안해서 가능하면 다음주 교섭에서 합의되도록 했으면 한다.